

고등학생의 희망 군집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

김진철¹, 장봉석²

¹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²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Differences in Learning Strategies for High School Students by Cluster Type of Hope

Jin-Cheol Kim¹, Bong Seok Jang²

¹Education Inspector, N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Ministry of Education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Snyder가 제안한 희망 이론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학교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희망 이론이 우리나라 일반고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군집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를 군집분석과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학생의 희망 군집은 네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과 학습전략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희망의 두 하위 변인 모두 메타인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희망이론은 프로파일적 접근을 통하여 성취나 적응 등 다양한 심리변인과의 관계구조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희망, 경로사고, 주도사고, 학습전략, 군집분석, 교육과정개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understand hope theory suggested by Snyder and confirm its utility in the school settings. We analyzed the survey data responded by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o find clustering types of hope and mean difference of learning strategies by each type through ANOVA.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pe by cluster analysis resulted in four types. Second, hope and learning strategy showed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Especially two sub-variables of hope and meta-cognition had highest correlation. Researchers suggested the direction of a future study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 among hope profile, student achievement, adjustment, and etc.

Key Words : Hope, Pathway Thinking, Agency Thinking, Learning Strategies, Cluster Analysis, Curriculum Development

1. 서론

최근 인간의 밝은 면을 부각시키고 치료보다는 예방적 삶을 강조하는 긍정심리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Snyder(Snyder, 2004)는 강화된 자기평가나 통제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육체적 행복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다차원적으로 희망이론을 제시하였다[1].

희망이론은 크게 목표(goals), 경로사고(pathway), 및 주도사고(agency)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행동은 실천 가능한 목표지향성(goal orientation)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써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이러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동기으로써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분된다[2].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희망사고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모두 필요한데, 희망적 사고과정에서 두 하위 변인들은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동된다. 또한, 희망의 하위변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수준이 다르게 때문에 여러 형태로 표출된다. 즉, 하위 변인의 단일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두 변인 수준이 다르게 표출되는 혼합패턴이 있을 수 있다[1].

한편, Snyder와 동료들(Snyder, Harris et al., 1991)은 희망척도(Disposition Hope Scale)를 통하여 학교 생활의 성취,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당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3]. 특히, Snyder의 희망이 학교교육의 적용 가능성만을 제시했을 뿐 실제적으로 희망이론의

*Corresponding Author : Bong Seok Jang(bsjang@mokpo.ac.kr)

하위 요인별 프로파일에 따른 유용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4]. 희망경로 전략으로만 학업성취의 성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가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세운 방법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5]. 학습자는 학습과정에서 어떤 학습전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학업성취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인 학습전략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일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yder의 희망의 하위 요인의 조합에 의한 군집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를 확인해보았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의 개인차 변인으로써 희망이론에서 하위변인이 단일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집유형에 주목을 하여 실제로 일반 고등학생들에게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희망이론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한익(2007)은 미국 대학생 150명의 Educational Belief Survey(HDI01) 성취도에서 주도사고는 긍정적인 영향변인이었으나 경로사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6].

또한, 학습전략은 개인의 학업성취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변인 중 하나이다. 학습전략은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에서 가장 명확한 목표를 갖는 심리변인이다. 희망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가 명확하면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키고(주도사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성하는 것을 인지하면(경로사고) 적극적으로 학습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한다[2]. 희망이론에서 하위변인들의 기능이 다르고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희망의 군집 유형에 따라서 학습전략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 결과의 확인들은 희망이론의 이론적 정교성과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학생의 희망은 어떤 군집유형을 표출되는가?

둘째, 희망 군집유형에 따라서 학습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2.1 희망 이론

희망이론은 인간행동은 목표지향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목표는 인지요소로서 이론의 기본이다[7]. 희

망이론에서 말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목표기간은 단기 혹은 장기적일 수 있고, 특성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며, 높은 수준의 희망은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이나 동기를 갖는다. 그리고 목표는 지속성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2].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경로사고는 하나의 자신감을 갖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며,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 경로사고는 직업 목표에도 지지되었고[8], 높은 희망수준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긍정적이고 내적 경로사고 메시지(예: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를 갖는다[9]. 경로사고는 목표 달성과정에서 해결순서를 정교하고 정확해진다. 즉, 특성 희망수준이 높으면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빨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주도사고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인데, 경로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인지된 능력이다.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동기를 지속한다. 주도사고는 특히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의의를 갖는데, 가장 유용한 경로사고를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10].

희망적인 사고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모두 필요하다. 희망적 사고가 발현되면서 두 하위 변인들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동된다. 즉,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상호작용하며 반복적 성격을 지닌다[2,3,10].

2.2 희망과 학습전략

희망과 학습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희망이론의 본질을 보면 학습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은 목표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희망적 사고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동되므로 희망은 문제해결전략과 동기를 동시에 가진다. 조한익(2012)은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은 학습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5]. 이런 결과는 희망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동기와 해결방법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학습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 다만 하위변인의 수준에 의해서 표출되는 단일패턴과 혼합패턴은 상호 반복적 사고과정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희망은 학생들의 학습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동시에 긍정적인 심리 개념을 적용하여 학습 논리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효과도 보고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2019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반고 3학년 학생 중에서 참여에 동의한 285명이 교과담임의 지도 아래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불완전한 설문 5명 응답을 제외한 280명(남자 116명, 여자 16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희망

본 연구에서는 김택호(2004)의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11]. 이는 Snyder와 Harris 등의 특성희망 척도(Trait Hope Scale)와 Snyder와 Symptom 등의 상태희망 척도(State Hope Scale)를 강이영(2003)이 번안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총 14문항이다[3.7.12]. 경로사고 7문항, 주도사고 7문항, 그리고 중립(filter) 변인 4문항으로 척도는 5점 Likert 형식(매우 아님~매우 그럼)으로 측정되고 중립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되었다. 설문형태는 일반적인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설문이므로 특성희망을 측정한 것이다.

문항 예시로써 경로사고 측정 문항은 “복잡한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도사고에는 “나는 나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나의 과거 경험은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해준다.” 등이 해당된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경로사고 .794, 주도사고 .798로 나타났다.

3.2.2 학습전략

학습전략의 측정도구는 윤혜경(2011)이 학습동기 전략 질문지(MSLQ)를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했다[13]. 학습전략은 총 25문항으로, 시연 4문항, 정교화 6문항, 조직화 7문항, 상위인지전략 8문항이며, 응답형태는 Likert 척도의 6단계(전혀 아님~매우 그럼)이며 자기

보고 형식이다.

문항 예시로써 시연 측정 문항은 “가장 중요개념이 무엇인지 스스로 상기시켰다.”, “중요 개념과 암기내용을 정리하였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교화는 “학습 주제와 관련된 다른 과정의 개념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공부하였다.” 등이 해당된다. 조직화 측정 문항은 “나만의 공부 방법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했다.”, “수업시간에 결론이나 주장을 읽거나 듣게 되면 가능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생각하였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메타인지는 “각각의 공부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행동을 분명하게 알았다.”, “수업시간에 노트필기를 못하면 수업시간을 마친 후에도 꼭 했다.” 등이 해당된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시연 .705, 정교화 .800, 조직화 .813, 메타인지 .755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통계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우선, 변인들의 기술통계, 가정의 검토 및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했다. 다음으로, 희망의 하위변인(경로사고, 주도사고)에 대한 군집분석을 했다.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으로 Wards 분석과 K-means 분석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했다[14]. 그리고 희망 군집유형별 학습전략 차이는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é 사후 검증을 통하여 확인했다.

4. 연구결과

4.1 측정자료 검토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의 검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왜도검증 결과, 학습전략의 시연, 정교화, 조직화 변인들이 음(-)의 값으로 부적 편포했으나 모든 변인들 값들이 절대값 1 이하로 정규성을 충족했고, 첨도 역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Table 1. Normality of variables

	Hope		Learning Strategy			
	Path	Agency	Rehearsal	Elaboration	Organization	Matacognition
Skewness	.152	.387	.163	-.148	-.586	-.207
Kurtosis	.225	.452	.231	.659	.616	.055

한편,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M) 및 표준편차(SD)는 Table 2와 같다.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는 .218부터 .817까지 분포되었는데,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d descriptive analysis

	x1	x2	x3	x4	x5	x6
x1						
x2	.808**					
x3	.218**	.221**				
x4	.280**	.282**	.790**			
x5	.282**	.262**	.800**	.817**		
x6	.425**	.419**	.603**	.705**	.613**	
M	26.16	25.82	16.17	25.01	28.09	31.26
SD	3.07	3.36	1.99	3.20	3.20	3.66

**p < .01

x1(경로), x2(주도), x3(시연), x4(정교화), x5(조직화), x6(메타인지)

4.2 희망의 군집모형

본 연구의 하위변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군집변인으로 설정해서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했다.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했는데, 1단계는 Wards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군집수, 초기 군집점을 결정하였다. 1단계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 K-means 분석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했다. 본 연구 자료들은 4개 군집으로 분류할 때 가장 차별화가 뚜렷해서 Table 3과 같이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명명했다.

Table 3. Centroid of type of hope by cluster analysis

Cluster	Group1 (N=38)	Group2 (N=118)	Group3 (N=60)	Group4 (N=64)
	High Hope	High Path	High Agency	Low Hope
Path	.440	.284	-.356	-1.199
Agency	.577	-.258	.388	-1.436

4.3 희망의 군집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의 군집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개 군집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학습전략을 종

속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높은 희망 집단, 높은 경로사고 집단, 높은 주도사고 집단의 평균이 낮은 희망 집단의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메타인지의 경우에는 높은 희망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경로사고 집단과 높은 주도사고 집단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4. Mean differences by type of hope

Category	Group	M	SD	F	Scheffé
Rehearsal	High Hope	16.66	1.45	16.054***	a,b,c>d
	High Path	16.80	2.40		
	High Agency	16.57	1.15		
	Low Hope	14.90	2.05		
Elaboration	High Hope	25.81	2.49	12.877***	a,b,c>d
	High Path	25.76	3.08		
	High Agency	25.63	2.61		
	Low Hope	23.15	3.72		
Organization	High Hope	29.10	2.29	11.052***	a,b,c>d
	High Path	28.60	2.36		
	High Agency	28.52	2.63		
	Low Hope	26.46	4.49		
Metacognition	High Hope	33.10	3.65	36.077***	a,b,c>d
	High Path	31.60	2.09		a>b,c
	High Agency	30.94	2.66		
	Low Hope	28.12	2.98		
Total	High Hope	10467	9.05	22.718***	a,b,c>d
	High Path	10276	8.99		
	High Agency	10168	7.52		
	Low Hope	9265	11.86		

5. 논의

본 연구는 Snyder에 의해서 제안된 희망이론이 우리나라 일반고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군집유형을 알아보고 그 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5.1 희망의 군집 유형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데이터를 군집분석은 먼저 Wards 방법에 의한 위계적 군집 분석과 위계적 방법으로 K-mean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최적화 군집은 네 가지 유형(높은 희망, 높은 경

로, 높은 주도, 낮은 희망)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기존 희망연구를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합한 총점수를 희망총점 위주로 했는데 희망의 하위변인들의 역할과 기능을 간과할 수 있다. 주도사고는 목표 지향적(예, 자아효능감)인 측면을 반영하고 경로사고는 목표(희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수전략 등)를 직면하는 계획방법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희망(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모두 높음)은 목표추구과정에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간에 유동적이고 빠르게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낮은 희망(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모두 낮음)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상호작용이 정지되거나 매우 느리게 작동할 수 있다. 군집2, 군집3과 같은 혼합된 희망 사고유형은 약한 주도사고나 경로사고의 구성요소 간의 상호 반복적인 사고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5.2 희망의 군집 유형에 따른 학습전략 차이

희망과 학습전략 간 상관은 모든 하위변인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alpha < .01$ 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조한익(2012)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11]. 구체적으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모두 학습전략의 메타인지와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고 시연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나 지속적으로 자기 동기화를 시도하는 학습자의 희망 변인은 학습내용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시연)보다는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선정하고 조절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총괄적 인지 전략(메타인지)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희망의 군집유형별 학습전략의 차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학습전략의 모든 하위변인들은 경로사고나 주도사고가 높은 경우가 모두 낮은 유형보다 학습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학습계획, 점검, 및 조절 등 인지전략을 총괄하여 간여하는 메타인지의 경우에는 높은 희망유형이 경로나 주도 중 하나만 높은 혼합 유형보다 높았다. 이는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등 두 사고가 상호 작용하면서 희망사고가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희망이론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취나 적응 등 실천적

측면에서 중요한 심리적 구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별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동시에 희망이론의 특징과 교육적 효과가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단계에서 논의될 때 초래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포함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Snyder가 제안한 희망이론의 군집유형과 이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데이터를 군집분석은 네 가지 유형(높은 희망, 높은 경로, 높은 주도, 낮은 희망)으로 표출되었다.

다음으로, 희망과 학습전략 간 상관은 모든 하위변인은 정적상관을 갖는다. 특히,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모두 학습전략의 메타인지와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단일 학교 3학년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전체 일반고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학년 등을 안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희망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에서 성취, 적응 등 학생들의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변인과의 관계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희망변인의 종단연구를 통하여 변화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통한 희망교육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C. R. Snyder (2004). Hope and Depression: A Light in the Dark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3), 347-351.
- [2] C. R. Snyde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3] C. R. Snyder, C. Harris, J. R. Anderson, S. A. Holleran, & L. M. Irving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4] J. C. Kim (2015). A relationship between hope

- and academic achievements and its implication for educational evalu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2015.
- [5] H. I. Cho (2012).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ope,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chool*, 9(3), 465-483.
- [6] H. I. Cho (2007). The Effects of Hope and Study Time on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chool*, 21(2), 349-365.
- [7] C. R. Snyder. S. C. Sympson. S. T. Michael. & J. Cheavens. (2000). *The optimism and hope constructs: Variants on a positive expectancy theme*. In E. C. Chung(Ed.), *Optimism and pessimis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8] C. A. Woodbury (1999). The relationship of anxiety, locus of control and hope to career indecision of African American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9Y(1-A), 4072.
- [9] C. R. Snyder. A. B. Lapointe. J. J. Jr. Crowson & S. Early (1998). Preferences of high-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 Emotion*, 12, 807-823.
- [10] C. R. Snyde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11] T. H. Kim (2004).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 [12] L. Y. Kang (200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nselling Process Hope Scales*,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13] H. K. Yoon (2011). *The relations among the MBTI preferences, study types and learning strategies*,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Seoul.
- [14] J. F. Hair & W. C. Black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m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5] A. B. I. Bernardo., M. G. C. Salanga., A. Khan., & S. S. Yeung. (2016). Internal and External Loci-of-Hope Predict Use of Individual and Collaborative Learning Strategies: Evidence from University Students in Four Asian Cities.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5, 367 - 376.

김진철(Jin-Cheol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석사)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박사)
- 1985년 9월 ~ 현재 : 중등교사, 교감, 장학관, 교육부 교육연구관

- 관심분야 : 교육심리, 교육과정, 인지심리
- E-Mail : jin1789@korea.kr

장봉석(Bong Seok Jang)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2006년 8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8월 : 미국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과정학과(교육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 실행
- E-Mail : bsjang@mokpo.ac.kr